

목진석 연간 최다대국 타이
체력도 강철…올 111국째



목진석 9단이 한국 바둑사상 연간 최다 대국 타이 기록을 수립했다.
목 9단은 지난달 2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면배 7국에서 일본의 야마다기

미모 9단을 282수 만에 백 3집 반으로 제

압했다.

목 9단은 이로써 지난 1989년 이창호 9

단이 수립한 연간 최다대국인 111국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웠다.

11월 28일 현재 111전 85승 26패를 기록한 목진석 9단은 이창호 9단이 수립한 111전 84승 27패의 기록보다 1승을 앞서고 있다. 현재 85승으로 연간 다승 부문에 서도 역대 2위에 올랐다.

금년 농심배, 마스터스 토너먼트, 한국리그, 원익배 등 단판 등을 남겨둔 목진석 9단은 연간 최다 대국 기록 경신은 물론 연간 최다승 기록까지 눈 앞에 두고 있다.

11월에만 9승1패를 기록한 목 9단이 남은 한달 동안 5승을 추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보인다. /윤영기자 penfoot@

이세돌 '위기의 한국바둑' 구한다

작년 중국에 세계대회 타이틀 5개 빼앗겨 아성 흔들

올 삼성화재배·LG배 등 맹활약, 중국팀 잇따라 격파



2007년은 한국 바둑 명예회복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무려 5개 세계 대회 타이틀을 중국에 내주면서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10여년 동안 꽃들여 쓰아온 '아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한국 바둑 위기론에 무게가 실린 것도 지난해다.

글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부진을 털어낸 한국 바둑은 올해 각종 세계기전에서 끊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현재 한국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우승을 예약한 타이틀은 무려 5개. 제3회 도요타엔 소배, 제19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이세돌이 이미 접수한 상태. 단체전인 농심배도 지난 2월 한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승이 확정된 삼성화재배에서는 박영훈 9단이, LG배에서는 한상훈 초단

이 결승에 진출해 각각 이세돌 9단과 우승을 다했다.

이같은 성적의 원동력으로는 이세돌 9단의 활약이 단연 1순위로 꼽힌다. 삼성화재배, LG 배가 한국 기사들의 득무대가 된 것은 이세돌의 분전 덕분이라는 게 바둑계의 전반적인 분석.

그는 삼성화재배와 LG배 준결승에서 각각 중국의 황이중 9단, 후야오위 8단의 추격을 뿐리치고 결승전을 한국 기사들의 친지로 만들었다.

이세돌이 이창호의 뒤를 이어 확실하게 지존의 위치를 굳혀가며 위기의 한국바둑을 다시 정상권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제3회 도요타엔소배에서 우승한데 이어 6월 제19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에 우승승리를 안기는 등 한국에 국제대회 타이틀 2개를 안겼다.

트로피를 손에 넣은 TV바둑아시아 선수권과

도요타엔소배에 이어 현재 결승에 올라있는 삼성화재배와 LG배에서 정상을 밟을 경우 국제대회 4관왕까지 가능하다.

한국은 단체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창호 9단이 부진을 털고 한국에 7번째 농심신라면배 우승을 안긴 것이다.

한국팀 주장 이창호는 지난 2월 중국 상하이 화팅호텔에서 열린 제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3차전 최종국에서 중국 주장 구리 9단을 상대로 277수 만에 흑 2집반 승을 거둬 2연승을 올리며 한국의 우승을 견인했다.

대회 6연패를 이룩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에 우승컵을 내주었던 한국은 초반 조훈현과 최철한, 원성진이 줄줄이 패하며 또 다시 우승이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막판 박영훈이 4연승을 몰아치고 이창호가 2연승을 거두며 극적으로 우승컵을 되찾아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88회 전국체전

호전적인 여성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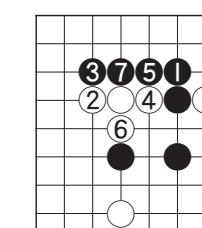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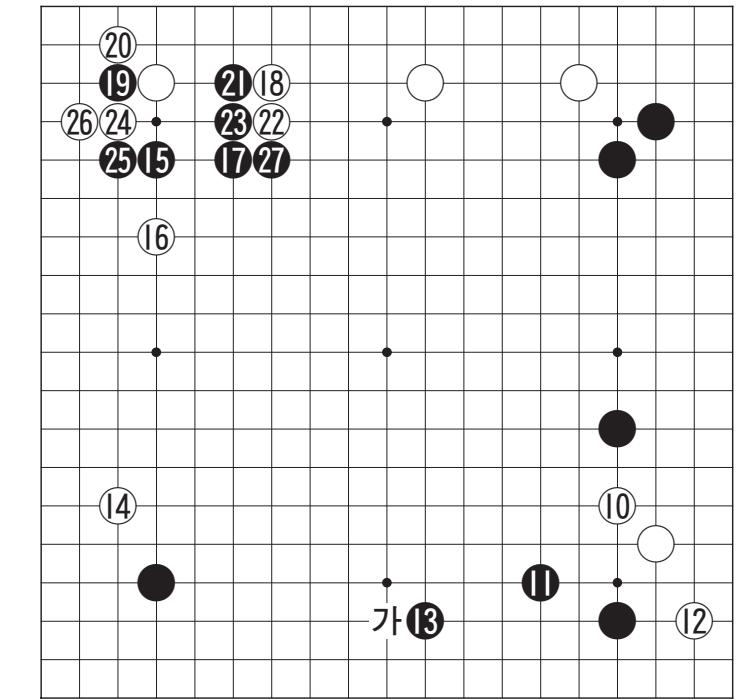
여성 일반부

2보(10~27)

결승전

白 이수빈 5단
(경기도)

黑 조경진 5단
(경기도)



여성들 의 바둑은 남성 들에 비해 활발 더 호전 적이라는 것 바둑계

하면 백 16도 강렬한 협공인데 18이 가드를 내리고 허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조경진 5단 유혹한다.

여기에 조경진 5단 참지 못하고 흑 21로 즉각 불어갔는데 이 수는 '참고도'의 백 1로 젖혀올 때 흑 2로 불인 다음 6으로 단수치겠다는 의도다.

이 모습은 백 2선으로 놀려 기분 나쁜 모양이다. 그래서 이수빈 5단 백 22로 올라서 반발하고 24로 귀의 흑 한점을 잡아 순식간에 대변화가 일어났다.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누군가 한 쪽이 큰 실수를 않는 이상에는 거의 대등한 걸말로 나타난다.

언제든지 균형을 생각하면서 타협을 하는 깨닭이다. 흑 27이 놓칠 수 없는 두터운 고부리이다.

<규칙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역시 '鐵女'

루이 나이웨이, 부안 여류기성전 2연패 달성

한국 여류바둑을 대표하는 '철녀' 루이 나이웨이 9단이 1인자 의 입지를 굳혀고 있다.

루이 9단은 최근 전북 부안군 부안여예술회관 특별대학실에서 벌어진 제2기 부안 여류기성전 결승에서 김혜민 5단에게 232수 만에 흑 반 접승을 거두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여류기성전 2연패(連霸)를 달성하면서 여류 기전 3관왕의 자리를 고수하는 등볍집할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

루이는 여류국수(5회), 여류명인(6회)을 포함해 현존 여류 3대 기전 우승 횟수를 총 13회로 늘렸다.

바둑계에서는 루이 9단이 이처럼 타이틀을 포식하자 당분간 그녀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기사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루이 9단은 내년 1월 초 시작되는 제9회 여류명인

전 도전 3번기서 우승할 경우 여류바둑계를 전하통일한다.

4연패를 노리는 루이에 맞서는 도전자는 2003년 제5회 대회 때 우승을 차지한 조현연(22) 7단.

또 루이는 중국이 주최하는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전 결승전에 진출, 국제대회 타이틀까지 손에 넣을 태세다. 결승전은 오는 2008년 1월 3번기로 진행된다.

결승 파트너는 '입신'을 앞두고 있는 박지은 8단. 한국 국가지도를 받아 출전해 나란히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의 상대전적은 루이 9단이 12승 6패로 앞서 있지만 국제대회에서는 5승 5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세계대회 결승에서는 지난 2001년 제2회 흥창배 여자선수권전에서 만났던 당시 루이가 2-1로 승리했다.

/윤영기자 penfoot@



"한승이형 사인해 줘요"

지난달 28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조현연 9단이 어린이 바둑팬들의 사인공세를 받고 있다. <사이버으로 제공>



고노린 9단, 日 천원전 암마시타에 1패뒤 2연승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 천원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고노린 9단은 종합전적 2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제31기 대회에서 암마시타 케이코 9단에게 천원 타이틀을 빼앗은 고노린 9단은 도전 1국에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

으나 내리 2판을 따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제32, 33기 연속 고노린 9단에게 도전하고 있는 암마시타 케이코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재 일본 7대 타이틀 중 펙킹 1, 6위 기전인 기성(棋聖),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도전자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은 본선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이야마 유타 7단을 꺾고 도전권을 따냈다.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 천원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고노린 9단은 종합전적 2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제31기 대회에서 암마시타 케이코 9단에게 천원 타이틀을 빼앗은 고노린 9단은 도전 1국에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

으나 내리 2판을 따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제32, 33기 연속 고노린 9단에게 도전하고 있는 암마시타 케이코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재 일본 7대 타이틀 중 펙킹 1, 6위 기전인 기성(棋聖),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도전자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은 본선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이야마 유타 7단을 꺾고 도전권을 따냈다.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 천원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고노린 9단은 종합전적 2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제31기 대회에서 암마시타 케이코 9단에게 천원 타이틀을 빼앗은 고노린 9단은 도전 1국에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

으나 내리 2판을 따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제32, 33기 연속 고노린 9단에게 도전하고 있는 암마시타 케이코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재 일본 7대 타이틀 중 펙킹 1, 6위 기전인 기성(棋聖),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도전자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은 본선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이야마 유타 7단을 꺾고 도전권을 따냈다.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 천원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고노린 9단은 종합전적 2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제31기 대회에서 암마시타 케이코 9단에게 천원 타이틀을 빼앗은 고노린 9단은 도전 1국에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

으나 내리 2판을 따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제32, 33기 연속 고노린 9단에게 도전하고 있는 암마시타 케이코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재 일본 7대 타이틀 중 펙킹 1, 6위 기전인 기성(棋聖),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도전자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은 본선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이야마 유타 7단을 꺾고 도전권을 따냈다.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 천원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도전자인 암마시타 케이코 9단을 221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고노린 9단은 종합전적 2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제31기 대회에서 암마시타 케이코 9단에게 천원 타이틀을 빼앗은 고노린 9단은 도전 1국에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합본(광주·주주·화순·장성·담양 합본)
지번도 책 판매종

한국외국어대, 대학바둑 정상에 올랐다.

한국외대는 최근 명지대 캠퍼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대학바둑연맹 가을 축제에서 김세현 유종수 김원태 이영남의 활약으로 4전 전승으로 오로부 폐권을 차지했다. 외국어대는

지난 2회와 3회에도 오로부 폐권을 손에 넣었다.

2위는 최종전서 외국어대에 3승6

폐권을 끊은 명지대가 차지했다.

한국외대는 최근 명지대 캠퍼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대학바둑연맹 가을 축제에서 김세현 유종수 김원태 이영남의 활약으로 4전 전승으로 오로부 폐권을 차지했다. 외국어대는 난가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명지대 C팀은 YB부 1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개 대학, 38개팀에서 300여명이 출전했다.

한국외국어대, 대학바둑 정상 올라

최종전 명지대에 6승3패